

합용병서 ‘ㅂ’계에 대한 음운사적 연구

이태희
(경희대학교)

Lee, Tae-Hee. 2005. On the P-initial Onset Clusters in Middle Korean. *Linguistic Research* 22.1, 35-50. This paper deals with the diachronic changes of the so-called “p-initial” onset clusters in Middle Korean which had occurred over 200 years, i.e., pt > st > t', pt^h > t^h, ps > s', pc > sc > c', psk > sk > k', pst > st > t'. For this purpose, I will first re-categorize the textual data in a systematic way showing the general path of the changes. Then, I will attempt to explain how each change had ended up as tensification. Here I will critically review the earlier controversy over the status of these clusters. Finally, I will provide a table showing how long each of the clusters was used in the literature chronologically. (Department of Korean, Kyung Hee University)

Keywords p-initial onset cluster, Middle Korean, the diachronic changes, tensification chronologically

1. 실마리

훈민정음 해례에는 글자의 제자 원리나 체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자음이나 모음의 음가를 한자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훈민정음 23자음 체계¹에 없는 합용병서가 훈민정음 합자해에 ‘ㅉ, ㅊ, ㅍ’ 등과 같이 예시되어 있으면서도² 그 음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1

훈민정음 23자음 체계

| 조음 점 청탁 | 아음 | 설음 | 순음 | 치음 | 후음 | 반설 | 반치 |
|------------|----|----|----|-----|----|----|----|
| 전청 | ㄱ | ㄷ | ㄴ | ㅅ ㅆ | ㅇ | | |
| 차청 | ㅋ | ㅌ | ㄲ | ㅈ ㅊ | ㅎ | | |
| 전탁 | ㆁ | ㄸ | ㅃ | ㅉ ㅊ | ㆁ | | |
| 불청불탁 | ㅇ | ㄴ | ㅇ | | ㅇ | ㄹ | ㅍ |

² 訓民正音<合字解> 合用並書에 關聯하여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ㅉ爲地, ㅊ爲隻,

그래서 학계에서 허웅(1953, 1965, 1981, 1999: 347-348)³, 권재선(1977: 73-81), 김차균(1984:24-30) 등은 모든 합용병서가 자음 군이라는 반면에 김민수(1955:19-30)⁴, 이동림(1964:18), 도수희(1971, 1995:154-156), 이은정(1975: 276-298) 등은 경음이거나 경음부호라는 견해가 있다. 한편 이승녕(1981, 1986:29-40), 이기문(1955, 1987:56)⁵, 이남덕(1986:23-25), 김형규(1989:104) 등은 ‘ㄴ’계만 어두자음군으로 보았고, 박병채(1971:304)는 후두음화, 서정범(1967, 1982:107)⁶은 표준어의 상징적 표기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선학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1차적으로 합용병서 어두‘ㄴ’계가 자음군인가 아니면 경음인가에 대하여 음절 구조제약의 관점에서 자질을 검토하고, 2차적으로 15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음가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합용병서 ‘ㄴ’계의 자질 검토

한국어에는 음절 구조제약 중에 ‘어두자음군’ 제약이 있다. 이 구조제약을 적용하여 합용병서의 자질을 구명하고자 한다. 먼저 합용병서의 분포를 15-18세기까지 통시적으로 살펴서 표기가 안정되었다면 한 음가로서 자질(경음)을 인정받는 것이고, 표기가 불규칙하거나 소실되었다면 음절 구조제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써 어두자음군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 擘爲隙之類.”

³ 허웅(1999:347-348) : “각 합용글자는 저마다 제 소리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고, “‘ㄴ’-계의 합용병서의 소리도, ‘ㄴ’-계의 경우와 같이, 각 글자가 제 소리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말을 정음으로 옮길 때, 娑多 짜 stha, 史擔 ㅍstham ……” 등과 같이 각각 소리 값이 있다는 것이다.(허웅, 1999: 352)

⁴ 김민수(1955:18-29) : 경음은 강렬한 폐쇄에서 나오는 음이므로 단순히 강렬한 폐쇄에서 발음되게 하려는 의미로 ㄴ 이나 ㄴ의 합용병서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리고 2자 병서는 어느 1자가, 3자 병서는 어느 2자가 묵음이 되거나 숨겨지게 되므로 각개 자음 군에는 그 중 주장이 되어 우세한 자음, 즉 주음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다.’라 하였다.

⁵ 이기문(1987:56-60) : “合用並書는 文字 그대로의 子音群을 나타냈다고 보는 것이 原則일 것이다. …” 그리고 “… 以上の 論述에서 後期 中世語에 다음과 같은 語頭子音群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ps pc pt pt^h pt’ pk’

이 體系는 첫 子音이 兩層 閉鎖音을 特徵으로 한다.”

⁶ 서정범(1967:13) : “…표준어로 정하는 어사에 ‘ㄴ’상징적으로 표기한 것이며 ‘ㅅ, ㅆ, ㅈ’과 같은 표기어가 의도하는 음은 ‘시, ㅅ’과 같이 평음이고 ‘ㅅ, ㅆ’이 의도하는 음은 ‘시, ㅅ’과 같이 경음의 상징 표기로서 ‘ㄴ’고유어의 어떤 음이 시차 성을 지니고 표기된 것이 아니라 다만 표기자들의 표기 기준에서 착안해 낸 표기법이다…”

다음 표기 분포를 통하여 자질을 검토한다.

표 1. 어두 ‘ㄷ’계의 표기 연표와 제약

| 연대 항목 | 15c | 16c | 17c | 18c | 현대 | 비고 |
|----------|--------------|---------|---------|--------|----|----|
| ㄷ | → → | → → | →◇ → | ㄷ ◇ | ㄷ | |
| ㄷ | →◇ → → | →◇ → | →◇ | ㄷ | ㄷ | |
| ㄷ | → | → | → | → | ㄷ | |
| ㄷ | → → | → → | →◇ → | ㄷ ◇ | ㄷ | |
| ㄷ | →◇ → → | →◇ → | →◇ | ㄷ | ㄷ | |
| ㄷ | →◇ → → | →◇ → | →◇ | ㄷ | ㄷ | |
| 제약 유무 | 무 | 유와 무 | 유와 무 | 유 | 유 | |

(표기 멈춤 표시; —◇, 표기 계속 표시; —>)

위와 같이 합용병서 ‘ㄷ’계의 표기는 어휘에 따라서 15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18세기 말까지 점차적으로 변화되었다.

- (1) 15세기 훈민정음 초기에는 합용병서 ‘ㄷ’계의 표기가 안정되었다.
- (2) 16세기에 이르러 ‘ㄷ, ㄷ, ㄷ’부터 표기가 변화되기 시작하여 17세기 말에 표기를 멈추었다. 이것은 1차 변화로써 ‘ㄷ’계 3자 합용병서와 ‘ㄷ’이 ‘어두자음군 제약’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 (3) ‘ㄷ, ㄷ’의 경우는 17세기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이르러 표기를 멈추었다. 이것은 ‘ㄷ’계의 2차 변화로써 어두자음군 제약을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 (4) ‘ㄷ’만이 경음(된소리)으로 굳어져서 존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용병서 ‘ㄷ’계는 어두자음군이었기 때문에 구조제약의 영향으로 경음으로 편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두자음군과 경음의 음가표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합용병서 어두 ‘ㄷ’계의 음가는 이기문의 학설을 인용하였다.)

표 2. 합용병서 어두 ‘ㅂ’계의 음가 표

| 음소 | /b/ | /bʰ/ | /b̥/ | /b̥ʰ/ | /b̥̥/ | /b̥̥ʰ/ | 비고 |
|--------|------|-------|------|-------|-------|--------|----|
| 자음군 음가 | [pt] | [ptʰ] | [ps] | [pc] | [pkʰ] | [ptʰ] | |
| 경음 음가 | [tʰ] | [tʰ] | [sʰ] | [cʰ] | [kʰ] | [tʰ] | |

3. 합용병서 어두 ‘ㅂ’계의 변화와 음가

15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표기의 다양한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서 음가의 추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3.1 ‘ㅂ’의 변화와 음가 추이

3.1.1 15세기 ‘ㅂ’의 분포

· 뵈(뵈) ; [석보 19:34 (1447)], · 뵈(뵈목 벌; 筈) ; [능엄 1:3 (1462)], · 뵈 · 다(따다; 摘) ; [석보 11:26 (1447)], · 뵈기(뵈기; 莓) ; [구간 6:12 (1489)], · 뵈(뵈; 垢) ; [석보 6:7 (1447)] [월석 8:11 (1459)], 뵈 · 디 · 다(떨 어지다) ; [용비 87 (1447)], 뵈나 · 다(떠나다) ; [관음 4 (1485)], 뵈 · 다(뛰 다,跳) ; [금삼 2:12 (1482)]

3.1.2 ㅂ>ㅅ의 변화

(1) 뵈(意) > 쏘(意)

- ① 뵈(意) : 15세기에 [석보 19:34 (1447)] [용비 86 (1447)] [법화 4:39 (1463)] [두시 초 7 (1481)], 16세기에 [박통사 초8:65 (1517 이전 추정)] [소학언해 6:7 (1586)], 17세기에 [동국신속 (1615)] [가례언해 (1632)] [박통사 중간 (1677)], 18세기에 [노걸대 중간 상10:37 (1795)].
- ② 쏘(意) : 17세기에 [두시 중간 2:48, 7:24 (1632)], 18세기에 [어제 내훈 2:96 (1734)].

(2) 뵈다(摘) > 쏘다(摘)

- ① 뵈다(摘) : 15세기에 [석보 11:26 (1447)] [월곡 99 (1447)] [내훈 2하:69

(1475) [두시 초10:8, 18:1 (1475)], 16세기에 [유합 하:46 (1576)], 17세기에 [두시 중 11:28 (1632)] [역어 하:2 (1690)], 18세기에 [송강 2:3 (1777)].

- ② **ㅅ다(摘)** : 17세기에 [내훈 중간2:104 (1656)], 18세기에 [청구 92 (1728)] [동문 상2 (1748)] [한청 296 (1779)].

3.1.3 ㅅ>ㅈ의 변화

(1) **ㅅ다(劓) > ㅈ다(劓)**

- ① **ㅅ다(劓)** : 15세기에 [구방 상:18 (1466)] [구간 1:47 (1489)]
- ② **ㅈ다(劓)** : 15세기에 [삼강 효:32 (1481)], 17세기에 [동국신속 열4:1, 4:60 (1617)]

(2) **ㅅ(女息) > ㅈ(女息)**

- ① **ㅅ(女息)** : 15세기에 [용비 96 (1447)] [석보 6:13 (1447)] [월곡 36 (1447)] [능엄 6:33 (1462)] [삼강 충29 (1481)], 17세기에 [동국신속삼강 충:1(1617)]
- ② **ㅈ(女息)** : 16세기에 [속삼강 효:19 (1514)], 18세기에 [청구 14 (1728)]

3.1.4 ㅈ의 변화와 음가 추이의 검토

표 3. ㅈ의 변화 추이 표

| 연대 항목 | 15c | 16c | 17c | 18c | 현대 | 비고 |
|----------|-----------|------|-----------|-----------|------|----|
| ㅈ>ㅅ | ㅈ | ㅈ | ㅈ>ㅅ | ㅈ> ㅅ | ㅈ | |
| 음가 | [pt] | [pt] | [pt]>[tʰ] | [pt]>[tʰ] | [tʰ] | |
| ㅅ>ㅈ | ㅅ, ㅈ | ㅈ | ㅅ, ㅈ | ㅈ | ㅈ | |
| 음가 | [tʰ],[pt] | [pt] | [tʰ],[pt] | [pt] | [tʰ] | |

(1) /ㅈ/[pt] > /ㅅ/[tʰ] ; 어두 ‘ㅈ’ 합용병서 표기는 훈민정음 합자해에 규정된 순 우리말 자음체계로서 15-16세기는 안정된 표기를 보이다가 17세기에 이르러 변화와 혼용이 겹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자음군에서 경음으

로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를 거쳐 18세기에는 ‘/ɰc/[pt]/ɰc/[t]’와 같이 전환되었다 할 수 있다.

(2) 15세기 어두 ‘ɰc’의 분포에서 성조의 표기를 보면 거성이 많다. 성조 거성은 일반적인 견해로써 성조소가 ‘고’라고 본다. 그래서 15세기부터 ‘/ɰc/[pt]’에는 고음이 추가 되어 경음 자질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어두자음군 제약에 의하여 다른 음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음 자질의 경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용이하였다고 생각된다.

3.2 ‘ɰc’의 변화와 음가 추이

3.2.1 15세기 ‘ɰc’의 분포

· ɰc · 다(彈) ; [월석 8:49 (1459)], : ɰc · 다(털 拂) ; [능엄 2:69 (1461)], · ɰc · 다(刮, 가를고) ; [월석 23:73 (1459)], · ɰc · 다(塚, 터질탁) ; [월석 2:38 (1459)], ɰc · 다(跳) ; [두시초 25:53 (1481)], : ɰc · 다(뺨다) ; [석보 19:20 (1447)]

3.2.2 ɰc>t의 변화

(1) · ɰc · 다(彈) > t다(彈)

- ① · ɰc · 다(彈) : 15세기에 [월석 8:49 (1459)] [두시 초 24:35 (1481)] [금삼 5:8 (1482)], 16세기에 [자화 중:17 (1527)] [신증유합 하:8 (1576)], 17세기에 [가례언해 (1632)].
- ② t다(彈) : 18세기에 [박통사 신석 1:6 (1765)].

3.2.3 t>ɰc의 변화

(1) t다(染) > ɰc다(染)

- ① t다(染) : 15세기에 [월석 2:59 (1459)] [원각 서:6 (1465)] [내훈 초간 3:48 (1475)], 16세기에 [분운역해 10 (1542)] [박통사 초간 상:70 (1517 이전 추정)], 17세기에 [역어유해 상:5 (1690)], 18세기에 [역어유해보

58 (1775)]

- ② ㅅ다(染) : 16세기에 [소학언해 2:7 (1586)], 17세기에 [태산집요 7 (1608)] [벽운신방 19 (1653)] [역어유해 상47 (1690)]

3.2.4 ㅅ의 변화와 음가 추이의 검토

표 4. ㅅ의 변화 추이 표

| 연대 항목 | 15c | 16c | 17c | 18c | 현대 | 비고 |
|----------|------|-----------|-----------|------|------|----|
| ㅅ>ㅅ | ㅅ | ㅅ | ㅅ | ㅅ | ㅅ | |
| 음가 | [pʰ] | [pʰ] | [pʰ] | [tʰ] | [tʰ] | |
| ㅅ>ㅅ | ㅅ | ㅅ, ㅅ | ㅅ, ㅅ | ㅅ | ㅅ | |
| 음가 | [tʰ] | [tʰ],[pʰ] | [tʰ],[pʰ] | [tʰ] | [tʰ] | |

(1) /ㅅ/[pʰ] > /ㅅ/[tʰ] ; 어두 ‘ㅅ’ 합용병서의 표기는 많지 않으며, 정음 초기 15세기에는 안정된 표기였으나 16세기부터 자음군 제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17세기 말에 유기음으로 전환이 완료되어 18세기에는 유기음 ‘/ㅅ/[tʰ]’만이 표기되어 나타났다.

(2) 합용병서 ‘ㅅ’에서 ‘ㅅ’은 유기음이다. 그런데 유기음은 경음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ㅅ’는 어두자음군이라 할 수 있다.

3.3 ‘ㅅ’의 변화와 음가 추이

3.3.1 15세기 ‘ㅅ’의 분포

· ㅅ·다(包) ; [두시초 16:67 (1481)], · ㅅ·다(쌓다) ; [삼강 孝 10 (1481)][積], · ㅅ·다(싸다) ; [구간 1:43 (1489)], · ㅅ(쌀) ; [월곡 62 (1447)], · ㅅ ; [내훈 序 3 (1475)], · ㅅ·다(쏘다) ; [구방 下 84 (1466)], · ㅅ·다(用) ; [용비 77 (1447)], · ㅅ·다(苦) ; [월석 2:25 (1459)], · ㅅ·다(掃) ; [월곡 55 (1447)], ㅅ(세) ; [금삼 2:60 (1482)], · ㅅ(種) ; [월석 1:12 (1459)], · ㅅ·다(射) ; [박통 초 상:54 (1517 전)]

3.3.2 ㅁ>ㅅ의 변화

(1) ㅁ다(用) > ㅅ다(用)

- ① ㅁ다(用) : 15세기에 [용비 77 (1447)] [훈민 언해 (1459)] [능엄경 1:81 (1462)] [법화 2:240 (1463)] [두시 초간 8:17 (1481)], 16세기에 [소학언해 2:30(1587)], 17세기에 [동국신속삼강 (1615)] [박통사 중간 상:1 (1677)], 18세기에 [노걸대 중간 상:5 (1795)]
- ② ㅅ다(用) : 16세기에 [박통사 초간 상:55 (1517 이전 추정)], 17세기에 [연병지남 4 (1612)] [박통사 중간 상:1 (1677)], 18세기에 [동문유해 산:13 (1748)] [한청문감 249 (1779)]

(2) ㅁ(米) > ㅅ

- ① ㅁ(米) : 15세기에 [월곡 62 (1447)] [석보 6:14 (1447)] [월석 1:45 (1459)] [원각경 (1465)] [두시 초간 7:37 (1481)], 17세기에 [박통사 중간 상:17 (1677)], 18세기에 [노걸대 중간 상:62 (1795)] [경신언해 67 (1880)]에 ‘나모와 ㅁ 감술’ 표기.
- ② ㅅ : 18세기에 [역어유해 보 42 (1775)] [한청문감 389 (1779)]

3.3.3 ㅁ의 변화와 음가 추이의 검토

표 5. ㅁ의 변화 추이 표

| 연대 항목 | 15c | 16c | 17c | 18c | 현대 | 비고 |
|----------|------|-----------|-----------|-----------|------|----|
| ㅁ>ㅅ | ㅁ | ㅁ, ㅅ | ㅁ, ㅅ | ㅁ, ㅅ | ㅅ | |
| 음가 | [ps] | [ps],[s'] | [ps],[s'] | [ps],[s'] | [s'] | |

(1) /ㅁ/[ps] > /ㅁ/[s'] ; 다른 ‘ㅁ’계 어두자음군은 18세기에 경음화가 완료되어 ‘ㅅ’계로 표기가 전환되었는데 어두‘ㅁ’은 18-19세기에 ‘ㅁ다(包) [1797년], ㅁ다(築)[1728, 1765], ㅁ(米)[1880], ㅁ다(射)[1797, 1880], ㅁ다(書) [1736, 1880], ㅁ(種)[1797]’ 등과 같이 표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ㅁ’만이 18세기 이후에까지 어두자음군으로 남아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하여 17-18세기 이후는 형태상으로는 ‘ㅁ’이지만 음가로는 ‘/ㅁ/[s']’ 경음(된소리)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ㅸ’의 경우 어느 시기까지를 어두자음군으로 보고, 어느 시기부터 경음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다른 ‘ㄷ’계의 어두자음군들은 16-17세기부터 어휘에 따라 경음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17-18세기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18세기 말까지의 ‘ㅸ’은 어두자음군으로 보고, 19세기부터는 ‘ㅸ’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음에 대한 표기로 생각 할 수 있다.

(3) 어두자음군 ‘ㄷ’계 중에서 ‘ㅸ’만이 형태적으로 존속했느냐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18세기말경에는 ‘ㄷ’계 합용병서가 대부분 ‘ㅸ>시, ㅸ>ㅸ’ 등과 같이 ‘ㅸ’계 경음으로 굳어졌는데 ‘ㅸ>(?)’을 대신 할 ‘ㅸ’계 경음체계(시, ㅸ, ㅸ)가 없었다. 따라서 ‘ㅸ’의 경음 표시에 대응으로 ‘ㅸ’을 표기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7-18세기 이후에는 합용병서 ‘ㄷ’계 어두자음군이 경음화 되면서 ‘ㅸ’계 된소리 체계가 재편되기 시작하여 ‘시, ㅸ, ㅸ, (ㅸ)=ㅸ, ㅸ’ 등으로 체계를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ㅸ’은 형태상 존속되었지만 ‘/ㅸ/=ㅸ/[s]’의 대응으로 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3.4 ‘ㅸ’의 변화와 음가 추이

3.4.1 15세기 ‘ㅸ’의 분포

· ㅸ · 다(짜다, 壓)[법화 7:119 (1463)], · ㅸ · 다(짜다 織)[삼강 련 2 (1481)], ㅸ · 다>(짜다 作)[능엄 8:88 (1462)], · ㅸ · 다>(짜다)[월석 1:23 (1459)][鹹; 짤 함 = 鹹], · ㅸ · 다>(짜다)[월석 1:29 (1459)](裂), · ㅸ · 다>(찢다)[월곡 161 (1447)], ㅸ>(짜; 隻, 匹, 配)[훈민 합자해 (1446)], ㅸ · 다>(찢다)[월석 10:24 (1459)](逐)

3.4.2 ㅸ>ㅸ의 변화

- (1) · ㅸ · 다(壓) > ㅸ다(壓)
 - ① · ㅸ · 다(壓) ; 15세기에 [법화 7:119 (1463)] [두시 초간 22:20 (1481)] [구간 6:52 (1489)], 16세기에 [분문운역이해방 25 (1542)], 17세기에 [박통사 중간 상:27 (1677)] [역어유해 상:66 (1690)].
 - ② ㅸ다(壓) : 18세기에 [동문유해 상:16 (1748)].

(2) ·뵤·다(織)> 쓰다(織)

- ① ·뵤·다(織) ; 15세기에 [능엄 9:53 (1462)] [삼강 력:2, 호:9 (1481)] [두시 초간 20:19 (1481)], 16세기에 [자회 하:19 (1527)], 17세기에 [노걸대 하:62 (1670)] [역어유해 하:3 (1690)], 18세기에 [역어유해보 43 (1775)]에 나타난 것은 17세기 ‘역어유해’를 그대로 옮긴데 기인한 것 같다.
- ② 쓰다(織) ; 18세기에 [삼역총해 8:9 (1703)] [한청문감 325 (1779)]

(3) 짝(隻,匹,配) > 짹(隻,匹,配)

- ① 짝(隻,匹,配) : 15세기에 [훈민 합자해 (1446)] [능엄경 6:30 (1462)] [두시 초간 15:3 (1481)], 16세기에 [자회 하:33 (1527)] [신증유합 하:23 (1576)] [소학언해 2:10 (1586)], 17세기에 [가례언해 (1532)] [역어유해 상:18 (1690)].
- ② 짹(隻,匹,配) : 18세기에 [왜어유해 상:23 (18세기 초)] [동문유해 상:52, 하:21 (1748)].

3.4.3 ㅈ>ㅉ의 변화

(1) 족(藍) > 쪽(藍)

- ① 족(藍) : 15세기에 [구방 하:49 (1466)] [구간 6:52 (1489)], 16세기에 [자회 상:9 (1527)] [분문온역이해방 25 (1542)] [유합 상:8 (1576)]
- ② 쪽(藍) : 18세기에 [유씨물명고 (순조 조)]

3.4.4 ㅉ의 변화와 음가 추이의 검토

표 6. ㅉ의 변화 추이 표

| 연대 항목 | 15c | 16c | 17c | 18c | 현대 | 비고 |
|----------|------|------|------|------|------|----|
| ㅉ>ㅉ | ㅉ | ㅉ | ㅉ | ㅉ | ㅉ | |
| 음가 | [pc] | [pc] | [pc] | [c'] | [c'] | |
| ㅈ>ㅉ | ㅈ | ㅈ | | ㅉ | ㅉ | |
| 음가 | [c] | [c] | | [c'] | [c'] | |

(1) /ㅅ/[pc] > /ㅆ/[c'] ; 어두 ‘ㅅ’은 15-17세기까지 어두자음군으로 표기되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ㅆ[c]’경음으로 변화되었다.

(2) 어두자음군 ‘ㅅ’의 경음화 시기는 합용병서 ‘ㅅ’계 경음이 체계의 재편을 이룬 시기로도 볼 수 있다. 15세기에 합용병서 ‘ㅅ’ 체계는 ‘ㅅ, ㅆ, ㅈ’이었으나 ‘ㅅ’계 어두자음군이 경음화 하여 ‘ㅅ’계로 전환되면서 ‘ㅅ’계 경음체계가 ‘ㅅ, ㅆ, ㅈ, ㅉ(ㅆ), ㅊ’ 등으로 확대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3.5 ‘ㅅ’의 변화와 음가 추이

3.5.1 15세기 ‘ㅅ’의 분포

· ㅅ>(틈) ; ㅅ爲隙 [解例. (1446)] [석보 6:24. (1447)] [능엄 1:105. (1461)], · ㅅ(꿀) ; [월석 1:42 (1459)], · ㅅ· 다(깎다) ; [원각序 9 (1465)], · ㅅ· 다(까다) ; [석보 13:10 (1447)], ㅅ· 다(破) ; [법화 1:13 (1463)], · ㅅ디· 다(꺼지다;沒) ; [능엄 1:8 (1461)], ㅅ· 다(꿨다;貫) ; [용비 23 (1447)], · ㅅ· 다(꾸다) ; [삼강 孝 9 (1481)], · ㅅ· 다(끄다;滅) ; [월곡 106 (1447)], ㅅ· 리· 다(꾸리다;包) ; [월석 2:43 (1459)], · ㅅ(끼니) ; [용비 113 (1447)], · ㅅ>(끼 때) ; [석보 13:1 (1447)], · ㅅ· 다(끼다;挾) ; [두시 初 10:26 (1481)]

3.5.2 ‘ㅅ>ㅆ, ㅆ> ㅉ’의 변화

(1) ㅅ(蜜) > ㅆ, ㅆ > ㅉ(蜜)

- ① ㅅ(蜜) ; 15세기에 [월석 1:42 (1459)] [능엄 7:16 (1462)] [두시 초 21:6 (1481)] [구간 3: 63 (1489)], 16세기에 [신증유합 상:26 (1576)].
- ② ㅆ(蜜) ; 16세기에 [자화 (1527)], 17세기에 [두창경험 방 (1608 이후 추정)], 18세기에 [유물 삼초(18세기 초)에 꿀꽃].
- ③ ㅆ ; [두시연해 중간 14:9 (1632)].
- ④ ㅉ(蜜) : [아연 (1819)]

(2) · ㅅ디· 다(꺼지다;沒, 陷) > ㅅ지다, ㅅ지다

- ① · ㅅ디· 다(꺼지다;沒, 陷) ; 15세기에 [능엄 1:8 (1461)] [법화 서:16

(1463) [금삼 3:50 (1481)] [남명 하:42 (1482)], 16세기에 [자화 하:17 (1527)] [유합 하:59 (1576)] [소학 5:14 (1586)], 17세기에 [두시 중간 2:32 (1632)].

② 써지다 ; 18세기에 [동문 하:53 (1748)] [한청 317 (1779)]

③ 벉지다 ; 18세기에 [역어유해 14(1775)].

(3) ·뻬·다(挾) > 벉다, 써다

① ·뻬·다(挾) ; 15세기에 [월석 13:56 (1459)] [월각 (1465)] [구방 상:88 (1466)] [법화 5:13 (1463)] [금삼 4:46 (1481)], 16세기에 [유합 하:47 (1576)] [소학 4:31 (1586)], 17세기에 [두창 75 (1608)].

② 벉다 ; 17세기에 [박통사 중간 중:21 (1677)]

③ 써다 ; 17세기에 [두시 중간 4:32 (1632)], 18세기에 [동문 상:30 (1748)] [한청 297 (1779)]

3.5.3 뻬의 변화와 음가 추이의 검토

표 7. 뻬의 변화 추이 표

| 연대 항목 | 15c | 16c | 17c | 18c | 현대 | 비고 |
|----------|-------|-------------|-----------------|-----------|------|----|
| 뻬>시, 뻬 | 뻬 | 뻬, 시 | 뻬, 시, 뻬 | 시, 뻬 | ㅅ | |
| 음가 | [pk'] | [pk'], [k'] | [pk'] [k'] [pk] | [k'] [pk] | [k'] | |

(1) /뻬/[pk'] > /시/[k'], /뻬/[pk] ; 어두자음군 ‘뻬’계 3자 합용병서는 ‘뻬/[pk]’으로 인정되는데 16-17세기에 ‘시/[k]’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17-18세기까지 완료되어 ‘시’경음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어두자음군 ‘뻬’계에 없던 ‘뻬’이 소수 표기되었다. 이 점은 표기의 보수성에 의하여 ‘뻬’을 잔류시킨 ‘[k]’의 표기로 볼 수 있다. 17-18세기에 다른 어두자음군들은 이미 경음화 되어 ‘스’합용병서로 편입된 시기의 관점에서 보아도 ‘뻬/[pk]’자음군(평음)은 타당하지 않다.

3.6 ‘ㅂ’의 변화와 음가 추이

3.6.1 15세기 ‘ㅂ’의 분포

· ㅂ>(때,時)[정음 합자 (1446)], ㅂ · 리 · 다>(破)[월곡 77 (1447)], ㅂ · 다 (溢)[능엄 8:102 (1461)], ㅂ · 다>(찌르다;刺)[월석 23:73 (1459)] [두시 初 15:6 (1481)]

3.6.2 ㅂ>ㅂc,ㅂc의 변화

(1) ㅂ리다(破) > ㅂ리다, ㅂ리다

- ① ㅂ리다(破) ; 15세기에 [월곡 77 (1447)] [원각 (1465)] [구방 상:27 (1466)] [두시 초 20:16 (1481)].
- ② ㅂ리다 ; 17세기에 [동국신속 5:80 (1617)] [박통사 중간 20:16 (1677)].
- ③ ㅂ리다 ; 15세기에 [삼강 충:25 (1481)], 18세기에 [송강 2:5 (1747)].

(2) ㅂ리(瘡) > ㅂ리, ㅂ리

- ① ㅂ리(瘡) ; 16세기에 [자회 중:33 (1527)].
- ② ㅂ리 ; 17세기에 [언해두창집요 상:1 (1608)], 18세기에 [역어유해보 34 (1775)].
- ③ ㅂ리 ; 18세기에 [동문유해 하:7 (1748)].

3.6.3 ㅂ의 변화와 음가 추이의 검토

표 8. ㅂ의 변화 추이 표

| 연대 | 15c | 16c | 17c | 18c | 현대 | 비고 |
|---------|-----------|-------|------|----------|------|----|
| 항목 | | | | | | |
| ㅂ>ㅂc,ㅂc | ㅂc,ㅂc | ㅂc | ㅂc | ㅂc,ㅂc | ㅂc | |
| 음가 | [ptʰ][tʰ] | [ptʰ] | [pt] | [tʰ][pt] | [tʰ] | |

(1) /ㅂc/[ptʰ] > /ㅂc/[tʰ], /ㅂc/[pt] ; 어두자음군 ‘ㅂ’계 3자 합용병서는 ‘/ㅂc/[pt]’로 인정되는데 15-16세기에 ‘/ㅂc/[tʰ]’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17세기까지 완

료되고, 17-18세기에 ‘비’을 거쳐서 ‘ㅈ’경음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마무리

훈민정음 해례에는 우리말(諺語)에 “자, 짝, 뽐” 등을 쓴다고만 되어 있고, ‘합용병서’에 대한 음가의 설명이 없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ㄷ’계 합용병서에 대하여 ‘경음 설과 자음군 설’로 대립되어 있고, 이 두 견해에 대하여 어두자음군 구조제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합용병서 ‘ㄷ’계는 16세기에 이르러 ‘ㄸ, ㅃ, ㅆ’ 등이 표기되지 못하고 경음인 ‘ㅈ’계 합용병서에 편입되었다.

둘째, 18세기에 이르러서는 ‘ㅊ, ㅌ’ 등도 표기가 안 되고 경음인 ‘ㅈ’계 합용병서에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합용병서 ‘ㄷ’계는 어두자음군 구조제약에 영향을 받아 경음인 ‘ㅈ’계 합용병서로 음가의 추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5세기 국어에서는 합용병서 ‘ㄷ’계 표기가 비교적 규칙적이었으나 17세기이후부터는 ‘ㅈ’계 합용병서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표기의 분포를 통시적으로 살펴서 음가의 추이를 고찰하였다.

첫째, 어두자음군 ‘ㅊ’의 음가 추이는 ‘/ㅊ/[pt] > /ㄷ/[t]’과 같이 18세기에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ㄸ’의 음가 추이는 ‘/ㄸ/[ptʰ] > /ㅌ/[tʰ]’와 같이 17세기 말에 유기음으로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셋째, 그런데 ‘ㅌ’의 표기는 18세기 이후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17-18세기 이후까지 형태상으로는 ‘ㅌ’으로 표기되고 있지만 음가 추이는 일어났다. 즉 음가 추이는 ‘/ㅌ/[ps] > /ㅌ/[s]’와 같이 17-18세기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넷째, ‘ㅃ’의 음가추이는 ‘/ㅃ/[pc] > /ㅍ/[c]’와 같이 18세기에 이르러 ‘ㅍ [c]’경음으로 되었다.

다섯째, ‘ㅆ’의 음가 추이는 ‘/ㅆ/[pk] > /ㅈ/[k]’와 같이 16-17세기에 ‘ㅈ [k]’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17-18세기까지 완료되어 ‘ㅈ’경음으로 편입되었다.

여섯째, ‘ㅆ’의 음가 추이는 ‘/ㅆ/[pt] > /ㅈ/[t]’와 같이 15-16세기에 ‘ㅈ [t]’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17세기까지 완료되어 ‘ㅈ’경음으로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합용병서 ‘ㅂ’계는 어두자음군이었기 때문에 자음군 제약의 영향을 받아서 16-18세기에 이르는 동안 경음으로 음가 추이가 일어났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신향. 1999. 훈민정음연구.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 권재선. 1977. 각자병서의 음가고. 한글, 160, 73-110.
- 권재선. 1998. 훈민정음의 표기법과 음운. 서울: 우골탐.
- 고영근. 1988.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김진우. 1987. 언어. 서울: 탑출판사.
- 김차균. 1983. 음운론의 원리. 서울: 창학사.
- 김차균. 1984. 15세기 국어병서의 음운론적 연구. 한글, 183, 3-67.
- 김무림. 2003. 국어음운론. 서울: 한신문화사.
- 김민수. 1955. 합용병서 음가론. 국어국문학, 13, 10-44.
- 김석득. 1999. 우리말 연구사. 서울: 정음문화사.
- 김형규. 1989. 국어사개요. 서울: 일조각.
- 김형주. 1993. 국어사연구. 부산: 부산대출판부.
- 도수희. 1971. 각자병서연구. 한글학회 50돌기념 논문집, 한글학회, 69-104쪽.
- 도수희. 1995. 한국어 음운사 연구. 서울: 탑출판사.
- 박병채. 1971. 고대국어의 연구. 서울: 고려대출판부.
- 박병채. 1993. 고대국어의 음운비교연구. 서울: 고려대출판부.
- 박창원. 1996. 중세국어 자음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서정범. 1990. 음운의 국어사적 연구. 서울: 집문당.
- 엄태수. 1997. ‘ㅅ’ 합용병서에 대한 연구. 서경대 인문과학연구, 1-20.
- 오정란. 1987.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우민섭. 2000. 중세국어 음운연구. 전북: 전주대출판부.
- 유창균. 1982. 국어학사. 서울: 형설출판사.
- 유창돈. 1978. 이조국어사 연구. 서울: 삼우출판사.
- 이기문. 1987. 국어사개설. 서울: 탑출판사.
- 이기문. 1987. 국어음운사연구. 서울: 탑출판사.
- 이기문. 1994. 16세기 국어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이기문·김진우·이상익. 1997. 국어음운론. 서울: 학연사.
- 이남덕. 1986. 15세기 국어의 어두자음군계 어휘의 어원 연구. 세종학연구, 21-62.
- 이동림. 1964. 어두어말복자음형성 급 축음 ‘ㅃ’과 ‘ㄱ, ㅅ(ㅆ), ㅂ’관계. 동국대 국어국문학논문집, 5, 6-18.

- 이병운. 2000. 중세국어의 음절과 표기법 연구. 부산: 세종출판사.
이성구. 1998. 훈민정음연구. 서울: 애플기획.
이승녕. 1986. 중세국어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이은정. 1975. 중세국어에서의 병서자의 소리 값에 대하여. 한글, 156, 273-305.
이익섭. 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연찬. 1985. 한국어음운론. 서울: 개문사.
최범훈. 1985. 중세한국어문법론. 서울: 이우출판사.
최세화. 1987. 국어학논고.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최현배. 1982. 고친한글갈. 서울: 정음문화사.
허삼복. 1991. 표기법과 표기인식. 어문연구, 22, 67-341.
허웅. 1992. 15-16세기 우리옛말본의 역사. 서울: 탑출판사.
허웅. 1999. 국어 음운학. 서울: 샘문화사.
홍윤표. 1986.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 19, 113-14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국어학)
130-701
전화: (02)996-2393, (02)907-4372
E-mail: leeth@khu.ac.kr

접수일자: 2005. 04. 20
게재일자: 2005. 06. 10